WWF
KOREA

2025 애니스테이 활동보고서

ANISTAY IMPACT REPORT 2025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WWF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자연보전기관으로 세계 100여 개국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3,800만 명 이상의 서포터즈와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WWF는 지구의 자연환경 파괴를 막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며,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인식 증진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WWF는 2014년 공식 설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f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간 정보

제목: 2025 애니스테이 활동보고서
발행인: 박민혜
작성자: 김진영, 안지애, 이규호
발행일: 2026년 8월
발행처: 한국WWF

디자인 작업: 베스트셀러바나나
표지 사진: ⓒ 철원두루미운영협의체

본 보고서 전체 혹은 일부를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아래 인용 표시를 참고하여 출처와 저작권을 표기하고 위에 열거된 당사자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인용 표시: 2025 애니스테이 활동보고서
ⓒ Text and graphics 2025 WWF-Korea.
All rights reserved.

목차

인사말 2

애니스테이
- 애니스테이(ANISTAY)란? 6
- 보전 활동 지역 및 생물종 8
- 생물종 위협요인 10
- 보전 방법 12
- 2025 성과요약 14

2025 애니스테이 활동 결과
- 생태계 분류 18
- 대상종 및 성과 20
- 파트너사 임직원 활동 38

맺음말 40

참고문헌 42

머무를 곳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WWF 사무총장
박민혜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은 평균 73% 감소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생물다양성은 회복이 어려운 임계점(Tipping Point)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자연 손실을 멈추고 생물다양성 회복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KM GBF)를 수립했습니다.

WWF 역시 이에 발맞춰 WWF Roadmap 2030을 발표하며 자연 회복을 위한 글로벌 행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큽니다. 자연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더욱 과감하고 폭넓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WWF는 개별 종(Species)의 보호를 넘어, 생물들이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인 '서식지(Habitat)'를 지키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 프로그램 '애니스테이(ANISTAY)'를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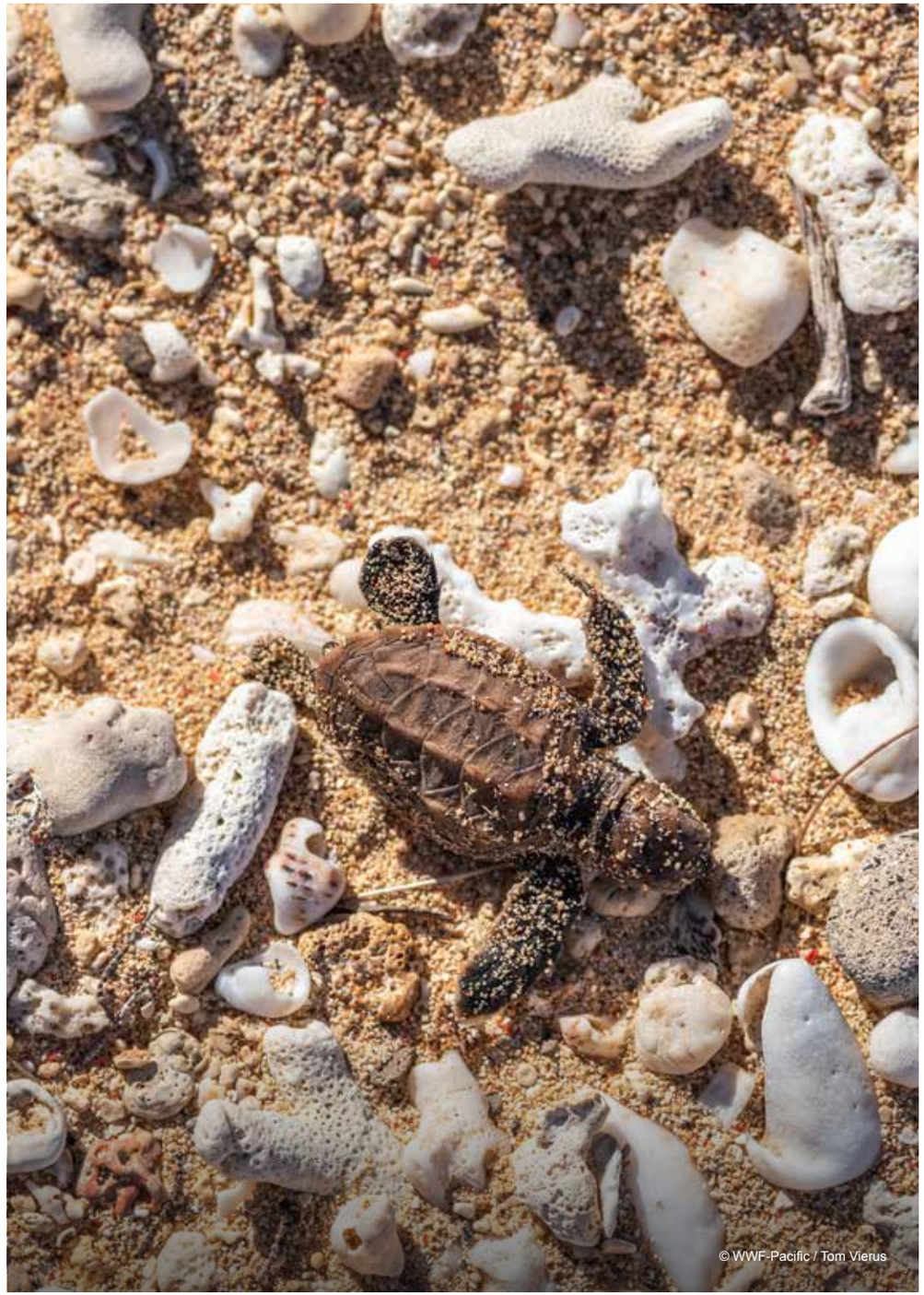
2025년은 애니스테이의 첫걸음을 내디딘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과학적 조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식지의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사회와 전문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보전과 개선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현장에서 만들어진 작은 변화들은 자연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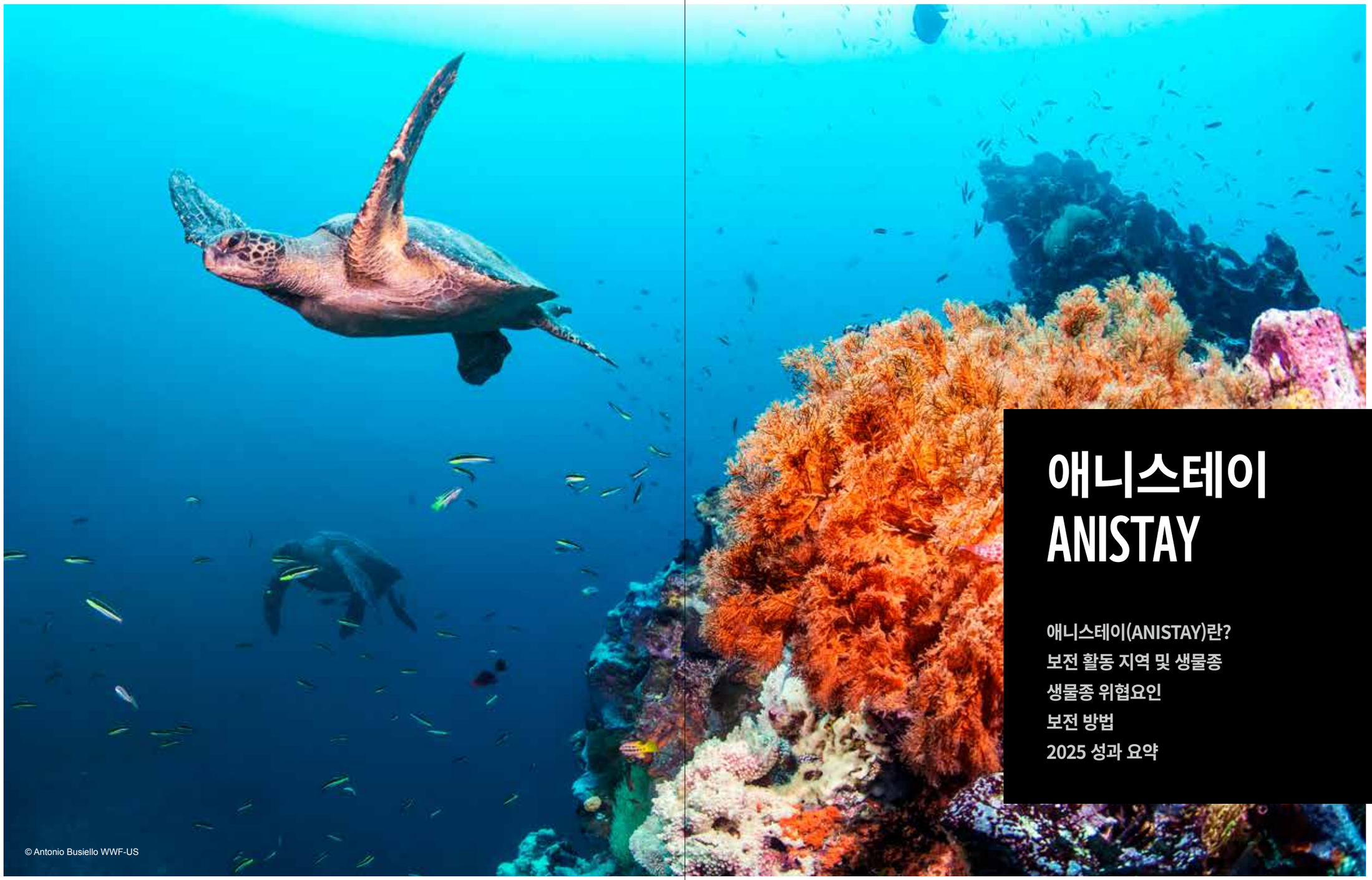
무엇보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WWF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와 현장 협력기관, 시민과학자, 정부기관, 그리고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신 기업과 후원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WWF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축적한 과학적 연구와 현장 경험,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전문성과 국내 현장의 실천을 연결하며, 생물다양성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애니스테이 첫 번째 활동보고서에는 한국WWF가 현장에서 마주한 과제와 고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낸 변화와 가능성을 담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더 많은 분들께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전하고, 자연을 위한 관심과 참여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Antonio Busiello WWF-US

애니스테이
ANISTAY

애니스테이(ANISTAY)란?
보전 활동 지역 및 생물종
생물종 위협요인
보전 방법
2025 성과 요약

애니스테이(ANIST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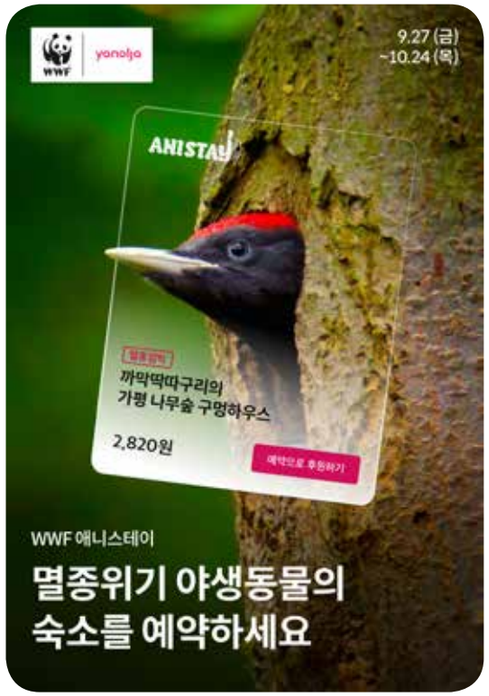
애니스테이(ANISTAY)란?

글로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은 2011-2020 전략 계획(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행 수단 강화, 사회 전 분야의 행동 촉구를 목표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 GBF)를 채택하였으며, KM GBF는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 하에 2050년까지 4개 목표, 2030년까지 23개 실천목표를 설정하였다.

한국 정부는 KM GBF를 상위전략으로 두고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2024-2028)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5년 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전략으로 KM GBF의 2030 실천목표와 정합성을 갖는다.

한국WWF는 KM GBF Target 4 및 NBSAP 실천목표 4에 따라 국가보호종(멸종위기종) 서식지 내외 관리 강화 및 서식지 보전 조치 강화를 목표로 기존의 '종 중심' 보전 접근을 넘어 생물종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지키는 '서식지 중심'의 보전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생물다양성 보전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국내 멸종위기 생물종은 282종에 이르며, 이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서식지의 훼손과 단절이다. 산림, 하천, 습지, 해안, 해양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인간 활동으로 훼손된 서식지는 생물종의 생존 기반을 약화시키고 이는 특정 종의 멸종을 넘어 생태계 전체의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애니스테이(ANISTAY)'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한 한국WWF의 대표적인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이름은 동물을 뜻하는 '애니멀(ANIMAL)'과 그들이 머무는 장소를 뜻하는 '스테이(STAY)'를 합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다양한 동물들의 공간이기도 함을 의미한다.

애니스테이를 런칭하면서 'NOL(야놀자)'과 함께 가상숙소 예약 캠페인도 진행하였다.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인간의 숙소에 빗대어 표현한 가상의 숙소를 예약하면 해당 금액이 애니스테이 프로그램에 기부되어 누구나 손쉽게 생물다양성 보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캠페인 4주간 10만명 이상이 캠페인 페이지에 방문하며 성공적으로 애니스테이의 출발을 알릴 수 있었다.

애니스테이는 인식 개선 활동과 실제 서식지 보전 활동을 결합하여 까막딱다구리가 살아가는 크고 오래된 숲, 바다거북과 점박이물범의 서식지인 바다, 반달가슴곰과 수달이 인간과 공존하는 숲과 하천 등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에서 이루어진다. 한국WWF는 애니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며 모니터링·연구·정화활동·지역사회 참여를 포함한 통합적 서식지 보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보전 활동 지역 및 생물종

애니스테이는 '종' 중심의 보전을 넘어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생태계 전반을 지키는
서식지 보전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접근하고 있다.
2025년 애니스테이는 산림, 하천/습지,
해양 생태계 내에서 국내 8종과 해외 1종,
총 9개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 **종:** 까막딱다구리
지역: 광릉숲(경기 포천)
내용: 생물종 탐사, 교육

2 **종:** 꿀벌
지역: 전국
내용: 연구보고서 발간, 인식제고

5 **종:** 두루미
지역: 철원 DMZ 일대
내용: 쉼터(무논) 조성

6 **종:** 수달
지역: 서울 한강
무등산국립공원
내용: 수달섬 조성
서식지 정화, 모니터링

3 **종:** 반달가슴곰
지역: 지리산국립공원
내용: 인간-야생동물 충돌 방지

4 **종:** 눈표범(해외)
지역: 네팔, 부탄, 인도
내용: 지역주민 갈등 완화

7 **종:** 저어새
지역: 서해안 갯벌(송도)
내용: 모니터링, 서식지 정화

8 **종:** 바다거북
지역: 제주 바다
내용: 서식지 정화

9 **종:** 점박이물범
지역: 충남 가로림만
내용: 모니터링, 교육

생물종 위협요인

지난 50년간 전 세계 야생 척추동물 개체군은 평균 73% 감소하였으며
국내 멸종위기 생물종은 282종에 이른다. 인간의 활동은 다방면으로
생물종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종의 문제를 넘어
산림, 하천, 습지, 해양 등 생태계 전반의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1 서식지 훼손

- 서식지 감소
- 서식지 파편화
- 난개발
- 취수
- 벌목

2 기후변화

- 생물 분포 변화
- 먹이원 감소
- 생물계절 불일치
- 성비불균형

© Bastien Preuss WWF France

3 직접적 포획 · 이용

- 사냥, 채취
- 밀렵 및 불법거래
- 남획
- 혼획

**인간 활동이 생물종에 가하는
직간접적인 압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

© Sascha Fonseca

4 환경 오염

- 수질오염
- 토양오염
- 폐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
- 빛 / 소음
- 폐어구(유령어업)

5 인간 – 야생동물 갈등

- 지역사회 갈등
- 로드킬
- 외래 교란종 유입
- 인공구조물에 의한 피해

© Robin Chittenden / naturepl.com / WWF

© 유성연 / 국립생태원

보전 방법

서식지 보호 · 복원

서식지 보호 및 복원은 멸종위기종 감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핵심 전략이다. 무분별한 개발과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해 서식지가 파편화되고 연결성이 약화되면서 종의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강화, 훼손된 서식지의 생태적 복원, 생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결성 회복은 종 보전을 넘어 생태계 전반의 회복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접근은 기후변화 대응과도 밀접하게 연계되는 통합적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의 중요한 축이다.

모니터링 · 연구

과학적 모니터링과 연구는 멸종위기종 보전 정책의 근거를 제공하는 핵심 수단이다. 개체수 변화, 이동경로, 유전적 다양성, 서식지 이용 패턴 등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은 위기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보전 효과를 검증하는 데 필수적이다. 카메라트랩, 위성추적, 원격탐사, 유전자 분석 등 다양한 기술 기반 연구는 근거 기반 보전(Evidence-based conservation)을 가능하게 하며 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의 효과성을 높인다.

인간 – 동물 갈등 완화

야생동물 보전의 측면에서 각 생물종과 서식지 보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은 충분한 대처가 아니다. 서식지 축소와 인간 활동 확대로 인해 야생동물과 인간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농작물·가축 피해, 안전 문제 등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지역 주민이 보전 활동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불법 포획이나 보복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 예방과 보상, 공간 분리, 비살상적 관리 수단을 포함한 종합적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갈등 완화는 단순한 피해 저감 차원을 넘어 지속적인 종 보전과 지역사회 신뢰 형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

지역사회/대중 인식제고 · 참여

보전의 지속가능성은 지역사회와 대중 인식제고 및 참여에 달려 있다. 지역 주민들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동시에 보전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주요 이해관계자이다. 주민 참여형 관리, 교육, 대체 소득 창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야생동물 보전을 지역사회의 부담이 아닌 기회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보전 행동을 유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대중 인식 제고 활동은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행동 변화와 참여를 이끌어내어 보전 활동의 사회적 기반을 다질 수 있다.

모니터링과 연구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서식지 보호 및 복원은 생태계 건강성과 온전성을 증진하고, 인간–동물 갈등 완화와 지역사회 참여, 대중 인식제고 활동은 사회적 기반을 강화한다. 이러한 네 가지 접근은 개별적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될 때 가장 높은 보전 효과를 발휘하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넘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 된다.

2025 성과 요약

한눈에 보는 성과

280,028 m²	6,255 kg	5 종	111 가구, 1,848명	16,413 명
서식지 보호 면적	쓰레기 수거량	모니터링	지역주민 참여	인식제고 활동 참여

참여 기업

GS 건설
신한은행
agoda
kakaogames
kakaomakers
com2us
Smilegate Foundation
Deloitte.
VENA ENERGY part of Vena Group
LINA 라이나손보 A Chubb Company
PIGLAB
NOL UNIVERSE
MUSINSA
TOPTEN KIDS
삼양식품
BUSHMAN

2025 애니스테이 활동 결과

생태계 분류
대상종 및 성과
파트너사 임직원 활동

2025 애니스테이 활동 결과

생태계 분류

본 보고서에서는 대상종이 서식하는 생태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서술함으로서 서식지 중심의 보전 활동 성과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전 국토의 약 63%를 차지하는 산림생태계에는 까막딱다구리와 꿀벌, 반달가슴곰이 터를 잡고 살아간다. 국토 곳곳에 자리한 하천과 습지생태계에는 두루미와 수달, 저어새가 서식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생태계에는 때마다 점박이물범과 바다거북이 찾아온다. 또한 야생동물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각각의 생태계는 탄소 흡수, 수질 정화 등 그 자체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갖는다.

산림생태계

산림은 탄소 흡수 및 저장, 수자원 조절, 침식 방지 등 전 지구 차원의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며 육상 생물종의 약 75%를 지탱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1]. 특히 우리나라에서 산림은 전 국토 면적의 62.7%(629만ha)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생태계이며[2], 자연적으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해 기후변화 완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형이 험하고 여름철 집중호우가 잦아 산림의 재해 방지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 산림 토양은 빗물을 머금었다가 천천히 내보내는 녹색 댐 역할을 하여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나무의 뿌리는 토양을 고정해 산사태와 토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산림은 백두대간과 DMZ라는 전 세계적 핵심 생태축을 가지고 있으며 자생식물 5,517종, 포유류 83종이 서식하는 핵심 지역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하고 있다[3]. 이외에도 산림 복지(산림 경관 제공, 산림 휴양, 산림 치유 등)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매우 높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 역시 연간 약 259조원에 달해 산림생태계와 산림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 II급

※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하천/습지생태계

하천은 단순히 수로가 아니라 하천 바닥의 구조, 위에서 내려다본 형태, 범람원(홍수 때 하천이 범람하여 형성된 평야), 둑, 식생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이다[4], [5]. 그리고 습지는 민물, 섞인 물, 바닷물이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나 연안습지를 말한다. 2024년 기준 전국 하천 면적은 2,126km2이며[6], 내륙습지 전체 추정 면적은 3,833km^{2}에[7] 이른다. 전국 연안습지 면적 또한 2,443km^{2}에 달한다[8]. 이러한 하천 및 습지생태계는 물을 흡수하여 홍수를 완화하고 가뭄 시 물을 공급하며, 자연 여과 시스템으로 작용해 수질을 정화하고, 탄소를 저장함으로써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등 여러 환경 조절 기능을 가진다[5]. 특히 습지는 지표면에 존재하는 탄소의 40% 이상을 저장할 수 있으며 이탄지(죽은 식물이 물속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장기간 퇴적되어 토양이 형성된 습지)와 산지습지는 중요한 탄소 흡수원 및 저장고가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하천 및 습지 생태계는 수달, 삵 등의 포유류와 고유 어류종, 멸종위기 양서파충류 등의 서식지이며, 특히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EAAF) 중앙에 위치하는 철새들의 주요 기착지이다. 국내에서 조사·확인된 생물종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대부분이 산림과 더불어 하천, 습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해양생태계

해양은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97%가 바닷물로 존재한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의 70% 이상이 바다에서 만들어지며, 해양은 대기보다 50배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여 열기를 식히고 기후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해양생태계는 탄소, 질소, 인과 같은 필수 원소들이 생물체와 해양 환경(물, 퇴적물) 사이를 순환하여 지구 전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및 오염 물질 여과 기능, 육지 침식 예방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특히 1차 생산자(식물플랑크톤, 조류 등)는 광합성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는 여러 해양생물의 산란장, 서식지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블루카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조류, 넓은 갯벌과 제주 세미 맹그로브 숲이 주목받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8,855종의 해양생물(해양척추동물, 해양무척추동물, 해양식물)이 기록되어 있으며[10], 특히 2006년부터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 보호종 등이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현재 푸른바다거북(파충류)과 점박이물범(포유류) 등을 포함해 91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최근 급격한 수온 상승과 함께 우리나라 해양생태계가 아열대화 됨에 따라 생물종 변화, 이동 추세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대상종 및 성과

산림생태계

1 까막딱다구리(*Dryocopus martius*)

——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광릉숲의 오랜 주인

1. 지정현황

세계적색목록 관심대상(LC) |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 한국적색목록 취약(VU) | 천연기념물 제242호

2. 특성

온몸이 검은색이며 수컷은 정수리 전체가, 암컷은 뒷머리 부분만 붉은색이다. 침엽수와 활엽수가 함께 자라는 숲의 오래된 나무를 선호한다. 부리로 나무줄기를 두들겨가며 구멍을 파서 곤충 애벌레를 잡아먹고 열매를 먹기도 한다. 둥지는 나무줄기에 암수가 공동으로 구멍을 파서 만든다.

3. 분포

(국내)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도의 고령림
(국외) 스칸디나비아 반도, 프랑스, 스페인, 캄차카 반도, 일본

4. 위협요인

까막딱다구리를 비롯한 대형 딱다구리가 서식할 수 있는 고령림 벌채로 인한 서식지 감소

5. 보전 필요성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개체수 자체가 적어 정부 보전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까막딱다구리는 넓고 건강한 산림생태계의 지표종이며 까막딱다구리 둥지를 이용하는 다른 소형 동물의 생존에도 영향을 주어 크낙새와 같이 절멸되기 이전에 서식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

활동목표

- 광릉숲의 생태적 가치와 멸종위기종 서식지로서의 중요성 인식 제고
- 멸종위기종 보전에 대한 이해와 시민참여 확대
- 광릉숲의 지속적 보전을 위한 기초 자료 축적

추진 방법

- 모니터링 · 연구
- 지역사회/대중 인식제고 · 참여

한국WWF는 까막딱다구리를 비롯한 여러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2025년 3월 국립수목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전 활동을 추진하였다. 광릉숲은 대표적인 까막딱다구리 서식지로 약 1,200ha의 소나무, 참나무류, 서어나무류 등이 혼재하는 천연림으로서 숲의 변화가 오래 진행되어 안정된 극상림(기후 조건에 맞게 성숙해져 안정화된 최종 단계의 숲)을 이루고 있다. 본 협력은 광릉숲이 식생 다양성 보전과 연구지로서 가지는 가치 외에도 까막딱다구리와 같은 야생동물의 핵심 서식지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인식 제고와 시민 참여형 보전 활동을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 아래, 국제 행사와 대중 참여 프로그램을 연계한 인식 제고 및 교육 활동이 추진되었다. 2025년 6월 개최된 제11회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인식 개선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과 까막딱다구리 부스를 운영하여 보호지역과 멸종위기종 보전의 연계 필요성을 공유하였다. 이는 보호지역이 특정종 보전의 핵심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국제적 맥락에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2025년 9월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열린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25'에서는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탐사 활동을 통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기초 생태 조사 자료를 축적하였다. 약 250명이 참여한 이번 활동에서는 총 1,084종의 생물이 기록되었으며 일부 미기록종이 새롭게 확인되는 성과가 도출되었다. 이와 함께 '까막딱다구리 Walk 프로그램'을 통해 종의 생태적 특성과 서식지 보전의 중요성을 현장 중심으로 전달함으로써 교육과 모니터링을 결합한 시민 과학 기반 접근을 강화하였으며, '까막딱다구리 토크콘서트'를 통해 실제로 접하기 어려운 현장관찰의 이야기와 생태사진을 통해 까막딱다구리의 실제 생활 모습과 함께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몰입감 있게 전달했다.

이 활동은 까막딱다구리를 매개로 인식 제고, 교육, 모니터링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사례로서 보호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장기적인 멸종위기종 보전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활동 요약

활동	내용	성과
모니터링 · 연구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25	• 250명 참여, 총 1,084종의 생물 기록, 일부 미기록종 신규 확인
지역사회/대중 인식제고 · 참여	제11회 세계식물원교육총회 (ICEBG) 참여	• 생물다양성 보전 인식 개선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주제로 특별 세션과 까막딱다구리 부스 운영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25 까막딱다구리 특화 프로그램 운영	• '까막딱다구리 Walk 프로그램' - 서식지 보전의 중요성 현장 전달 • '까막딱다구리 토크콘서트' - 영상자료와 현장관찰 스토리를 통해 까막딱다구리 생활사와 위협요인 교육

협력기관 국립수목원

2 꿀벌(*Apis mellifera*)

── 취약해진 벌의 생존, 모두의 힘을 모아

1. 지정현황

법적 지정현황 없음

2. 특성

꿀벌 집단은 한 마리의 여왕벌, 다수의 일벌, 일부 수벌로 이루어진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대륙에 서식하며 자연적으로는 숲의 빈 나무 구멍, 바위 틈, 동굴 등 천적과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폐쇄된 공간에 집을 짓는다. 인근에 물을 구할 수 있고 꽃이 피는 지역을 선호한다. 주로 이른 봄부터 시작하여 5-6월에 주로 산란한다.

3. 분포

산이나 들에서 흔히 양봉되며 전세계에 분포

4. 위협요인

기후변화로 인해 난대 지역에 서식하던 포식자들이 온대 지역으로 확산되며 증가하는 직접적 위협, 먹이와 둥지자원을 둘러싼 경쟁 심화, 먹이자원이 되는 꽃과의 생물계절적 불일치 등

5. 보전 필요성

꿀벌은 현재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매우 민감한 기후변화 지표종이며 식량 안보와 생물다양성 유지에도 매우 중요한 종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꿀벌 보전 활동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이 꿀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활동목표

- 기후·환경 요인이 꿀벌 생존에 미치는 영향 과학적 분석
- 대중 참여를 통한 꿀벌 보호 인식 확산
- 다양한 환경에서의 꿀벌 서식지 보호 전략 기반 마련

추진 방법

- 모니터링 · 연구
- 지역사회/대중 인식제고 · 참여

꿀벌은 생태계 안정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종이다.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다양한 식물의 수분 활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반적인 서식지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WWF와 서울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침입종 확산은 꿀벌 생존과 수분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생물다양성 감소와 식량 안보 위협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꿀벌 보호는 서식지 관리,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회복력 강화 등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2025년 한국WWF는 서울대학교 기후연구실과 협력하여 꿀벌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먼저 대기오염, 기온·강수 변화, 침입종의 영향 분석을 통해 꿀벌 활동과 수분 효율 데이터를 수집하고 PM2.5와 기온 상승이 꿀벌 군집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했다. 이를 통해 꿀벌이 기후변화와 환경 오염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과학적으로 입증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WWF는 대중 참여와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2025년 국립수목원에서 개최한 '세계 벌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꿀벌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발표하고 서식지 관리, 산림 생태계 보호, 정부-민간 협력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행사에는 15개 기관과 전문가·시민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꿀벌 보호에 대한 관심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대중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WWF는 온라인 게임 '꿀벌 서바이벌: 꿀벌을 지켜라!'를 공개했다. 이 게임은 폭염, 폭우, 침입종 등 꿀벌을 위협하는 요인을 플레이어가 직접 체험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1만 명 이상이 게임에 참여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85%가 게임 체험 후 꿀벌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지게 되었으며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답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한국WWF는 꿀벌 서식지 보호 전략을 제안하고 도시, 농경지, 산림 등 다양한 환경에서 꿀벌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홍보, 교육, 정책 제안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꿀벌 보호와 생태계 회복력 강화,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국내에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활동 요약

활동	내용	성과
모니터링 · 연구	서울대 기후연구실과 공동 연구 수행 : 대기오염·기온·강수 변화·침입종의 영향 분석	• 보고서 2권 발간 및 보호정책 제안 • '대기오염으로 인한 꿀벌 시정거리의 감소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기상 변동성과 침입 포식자의 확산을 통해 기후변화가 꿀벌 군집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대중 인식제고 · 참여	'세계 벌의 날' 행사 참여	• 전문가·시민 500여 명, 기관 15개 참여 • 기후변화와 꿀벌 보호 발표
	온라인 게임 '꿀벌 서바이벌: 꿀벌을 지켜라!' 공개	• 게임 참여자 1만 명 이상 • 설문 조사 85% 꿀벌 보호 필요성 인식 증가

협력기관 국립수목원

3 반달가슴곰(*Ursus thibetanus*)

── 갈등에서 공존으로

1. 지정현황

세계적색목록 취약(VU)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 한국적색목록 위기(EN) | 천연기념물 제329호

2. 특성

가슴에 선명한 V자 모양의 흰색 무늬를 가진다. 높은 지대의 험하고 먹이자원이 풍부하며 바위가 많은 산림에서 생활한다. 잡식성으로 단단한 과일이나 도토리를 좋아한다. 후각과 청각은 매우 발달하였으나 시각은 발달하지 않았다. 바위굴이나 나무 구멍 속에서 겨울잠을 자고 암컷은 겨울잠 도중 새끼를 낳아 반수면 상태에서 새끼를 돌본다.

3. 분포

(국내)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등
(국외) 동부 시베리아 우수리 지방

4. 위협요인

서식지 훼손과 서식지 파편화로 인한 대형포유류 활동범위 제한, 밀렵 및 지역사회 갈등

5. 보전 필요성

반달가슴곰은 최상위 포식자 및 산림생태계의 우산종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먹이사슬 안정화에 기여한다. 서식지 훼손 및 밀렵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했으나 지속적인 복원 사업으로 2025년 기준 93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원으로 인한 갈등 및 피해가 우려되는 종으로서 인간과의 갈등 방지, 공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활동목표

- 과학적 모니터링을 통한 고위험 지역 선제적 관리 기반 마련
- 반달가슴곰-인간 갈등 발생 가능성 최소화
- 반달가슴곰과 인간의 생태적·사회적 공존

추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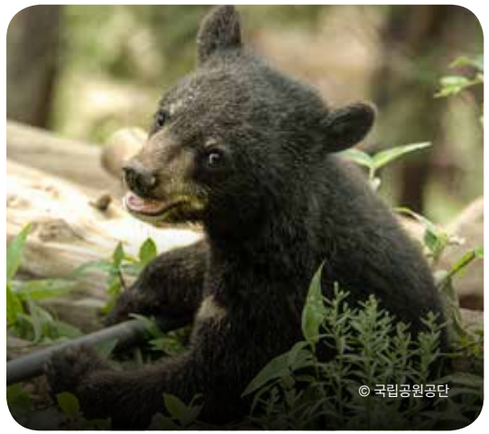
- 인간-동물 갈등 완화
- 지역사회/대중 인식제고 · 참여

반달가슴곰은 1차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부터 지속적으로 증식 연구 및 복원 사업을 시행해온 종으로 대량증식에 성공하여 지리산 일대에 방사되었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의 다음 단계는 개체수 증식을 넘어 인간–야생동물 간 갈등을 최소화하며 공존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한반도 산림은 도로, 주거지, 농경지 등 다양한 인위적 경관요소로 인해 과거와 같이 야생동물의 생활권과 인간의 활동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기 어렵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 속에서 반달가슴곰 복원의 지속 가능성은 갈등 발생 이후의 대응이 아닌,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전략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반달가슴곰은 활동 반경이 넓고 먹이 활동 과정에서 양봉 시설, 농경지, 주거지 인근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주민의 생계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복원 성과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야생동물 갈등 완화는 단순한 보조적 과제가 아니라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의 핵심 전략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WWF는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예방적 관리에 초점을 둔 현장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양봉 시설과 단독주택 등 피해 유발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전기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반달가슴곰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2025년에는 52개의 양·한봉 농가에 약 2,200m 길이의 전기울타리를 설치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1년간 반달가슴곰 활동지역에서 18건의 양·한봉 대물피해가 있었으나 전기울타리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립공원 인근 8개 시·군 지역주민 1,811명을 대상으로 안전물품을 배포하고 인식 제고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반달가슴곰 사이의 우발적 접촉을 줄일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 내 인식변화와 작은 생활양식 변화만으로도 자연 생태계와 공존하며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26년에는 지리산 탐방로에 베어벨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탐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 국립공원공단

이러한 접근은 반달가슴곰의 행동을 통제하기보다 인간 활동을 조정함으로써 갈등을 줄이는 비살상적·예방 중심의 관리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향후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서 인간–야생동물 갈등 완화 전략은 정부 주도의 개체 관리와 보호 정책을 보완하는 핵심 축으로 작동해야 한다. 민간 차원의 지원은 현장 중심의 유연한 개입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갈등 예방과 보전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반달가슴곰 외에 다른 멸종위기 야생동물 복원 정책에도 적용 가능한 선도적 모델이 될 것이다.

활동 요약

활동	내용	성과
인간-동물 갈등완화	재산피해 예방용 접근방지 시설 설치	• 4개 시·군 양봉 42개소(3,606통), 한봉 10개소(471통) 대상 약 2,200m 전기울타리 설치 운영
지역사회/대중 인식제고 · 참여	지역주민 대상 안전물품 배포 및 인식제고 활동	• 8개 시·군 지역주민 1,811명 대상 6,028개 안전물품 (종 3,000개 호루라기 3,028개) 배부

협력기관 국립공원 KOREA NATIONAL PARK

4 눈표범(*Panthera uncia*)

── 생물다양성 보전, 국경을 넘어

1. 지정현황

세계적색목록 취약(VU)

Schedule I 최고등급 보호종
네팔, 부탄, 인도 지정현황

2. 특성

험준한 고산지대에서 주로 단독으로 생활한다. 털이 길고 촘촘해 영하의 기온에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으며, 길고 두꺼운 꼬리를 이용해 가파른 절벽에서 균형을 잡고 잘 때는 담요처럼 활용해 코와 입을 보호한다.

3. 분포

(국외) 남쪽의 히말라야에서 칭하이-티베트 고원과 중앙아시아 산악지대를 넘어 북쪽 시베리아 남부 산맥까지 분포 (중국, 부탄, 인도, 네팔, 중앙아시아 등)

4. 위협요인

가축 손실 위험이 있는 유목민들과의 대립, 지역개발 등

5. 보전 필요성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종으로 최상위 포식자인 눈표범이 멸종하게 되면 그 지역의 먹이사슬, 생태계 균형이 붕괴되고 이는 결국 전 지구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물다양성 보전은 해당 국가만의 책임이 아니기에 전지구적인 관점에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눈표범 보전 노력이 필요하다.

활동목표

- 과학적 조사를 통한 장기 보전 전략 근거 확보
- 눈표범과 인간의 갈등요인 분석 및 저감
- 자연 의존성이 높은 지역사회가 보전의 수혜자이자 주체로 자리 잡는 기반 형성

추진 방법

- 모니터링 · 연구
- 인간-동물 갈등 완화
- 지역사회/대중 인식제고 · 참여

중앙아시아 고산 지대 최상위 포식자인 눈표범을 보전하는 것은 지역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과제인 동시에 단일 종 보호를 넘어 지역사회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이다. 이에 따라 네팔, 부탄, 인도에서는 인간–야생동물 갈등 완화, 과학적 모니터링 및 연구,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와 인식 제고를 축으로 한 통합적 보전 전략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네팔 칸첸중가 보전구역(Khangchendzonga)에서 추진된 눈표범 보전사업은 눈표범의 먹이인 푸른양(Blue Sheep)과 눈표범 개체군을 동시에 고려한 과학적 조사와 지역사회 중심의 갈등 관리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40여명의 시민 과학자 참여 조사를 통해 2,332마리 푸른양 개체군의 적정 밀도와(2.65마리/km^2) 건강한 출산율 구조가(암컷 100마리당 새끼 45마리) 확인되었다.

카메라트랩 기반 조사 결과 해당 보전구역 내 눈표범 성체 13마리가 확인되었으며, 2025년 네팔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총 397마리라는 공식 추정치가 발표되었다. 해당 데이터는 '네팔 눈표범 보전 행동계획(2024–2030)' 과 함께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또한 지역 리더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행동 변화 커뮤니케이션(BCC) 교육과 학교 기반 보전 교육을 통해 가축 피해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부탄 누브리(Nubri) 지역에서는 즉각적인 생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인간–야생동물 갈등 완화에 우선적으로 개입했다. 고산 목초지에서 반복되던 송아지 피해에 대응해 태양광 펜스 설치, 공동 설계 워크숍, 유지관리 교육 등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단기적인 피해 감소와 함께 지역사회의 보전 필요성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아울러 전통 생태지식 수집과 맞춤형 교육 자료 개발을 통해 눈표범에 대한 문화적 인식과 생태적 이해를 보완했다. 2차년도부터는 GPS 추적과 계절별 포식 패턴 분석 등 과학적 연구 중심의 접근으로 전환하여 생태계 이동 경로와 주민 생계 활동 간 상호작용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인도 시킴(Sikkim) 지역에서는 유목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가축 손실 완화를 통한 갈등 예방 전략이 추진되었다. 질병, 기후 요인, 포식으로 인한 복합적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과 보조 사료 지원, 태양광 가로등 설치, 울타리 보강 등 공동 해결 방안이 적용되었으며 이는 가축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야간 포식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향후에는 이러한 조치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목민의 인식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보전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점은 눈표범 보전이 단순한 종 보호를 넘어 지역사회 참여를 기반으로 한 갈등 완화와 과학적 데이터 축적이 병행될 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는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 변화 속에서 눈표범의 이동과 서식지 이용 양상을 추적하는 근거를 제공하며, 교육과 참여 기반 활동은 지역사회가 보전의 수혜자이자 주체로 자리 잡는 토대를 형성한다. 이러한 복합적 접근은 눈표범 보전을 넘어 고산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한 관리 전략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활동 요약

활동	내용	성과
모니터링 · 연구	(네팔) 칸첸중가 보전구역(KCA) 푸른양(Blue Sheep)과 눈표범 개체군을 동시에 고려한 과학적 조사	• 40여명의 시민과학자 참여: 2,332마리 푸른양 개체군의 적정 밀도와 (2.65마리/km^2) 건강한 출산율 구조(암컷 100마리당 새끼 45마리) 확인 • 카메라트랩 기반 조사: 해당 보전구역 내 성체 눈표범 13마리 확인, 2025년 네팔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총 397마리 공식 추정치 발표
인간-동물 갈등완화	(부탄) 누브리(Nubri) 지역 태양광 펜스 설치, 공동 설계 워크숍, 유지관리 교육	• 태양광 펜스 17개 가구 제공 • 단기적인 피해 감소와 함께 지역사회 수용성 증가
	(인도) 시킴(Sikkim) 지역 유목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가축 손실 완화를 통한 갈등 예방 전략 추진을 통한 공동 해결방안 적용	• 의약품과 보조 사료 지원: 23개 가구, 가축 2,600개체 보호 • 태양광 가로등 설치: 4개 가구, 가축 480개체 보호 • 울타리 보강체인 연결형 울타리 설치: 4개 가구, 가축 760개체 보호
지역사회/대중 인식제고 · 참여	(네팔) 칸첸중가 보전구역(KCA) 지역 리더 · 청년 대상 행동변화 커뮤니케이션 교육 및 학교기반 보전교육	• 가축 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 지역 차원 공감대 형성기반 마련
	(부탄) 전통 생태지식 수집 및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 눈표범에 대한 문화적 인식 및 생태적 이해 보완

5 두루미(*Grus japonensis*)

── 농민의 마음으로 지켜낸 보금자리

1. 지정현황

- 세계적색목록 위기(EN)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 한국적색목록 위기(EN)
- 천연기념물 제202호

2. 특성

키가 약 150cm에 달하는 대형 조류로 붉은 정수리, 검은 목, 흰 몸이 특징이다. 겨울 철새이며 우리나라는 월동지로 주로 민간인통제지역 일대의 논, 율무밭, 옥수수밭 등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결빙된 저수지, 강의 모래톱 등을 잠자리로 이용한다. 암컷, 수컷, 새끼로 형성된 가족단위로 행동한다.

3. 분포

(국내) 강원도 철원, 경기도 연천, 파주, 강화 등 주로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지역 일대에서 월동 (국외) 러시아 동남부, 중국 동북지방, 일본 홋카이도 등지에서 번식/중국 중동부 등지에서 월동

© 국립생물자원관

4. 위협요인

서식지 감소, 농약중독, 전깃줄과의 충돌 등

5. 보전 필요성

두루미는 깨끗한 물, 풍부한 먹이, 천적으로부터 안전한 탁트인 공간이 모두 갖춰진 곳에서만 서식하므로 생태계의 건강성을 증명하는 지표종이며 습지생태계의 우산종으로서 동일한 서식지 내의 많은 식물, 곤충, 양서류, 어류에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핵심 철새 이동 경로에 위치하여 현재 두루미의 최대 월동지가 되었으며, 서식지 확대 및 분산을 포함한 적극적인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

활동목표

-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두루미의 안정적인 먹이 자원과 잠자리 확보
- 서식지 분산을 통한 전염병 확산 최소화
- 두루미와 지역주민의 조화로운 공존 모델 구축

추진 방법

- 서식지 보호·복원
- 지역사회/대중 인식제고·참여

북한과 중국 지역의 서식지 파괴로 인해 인간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넓은 평야와 습지, 하천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DMZ 지역에 찾아오는 두루미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철원 DMZ지역이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최대 월동지가 되었다. 철원 DMZ지역은 동아시아 핵심 철새 이동 경로로 두루미뿐 아니라 다양한 철새의 월동·중간 기착·개체군 보전을 위한 핵심 요충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지역 역시 최근 보호지역 축소 및 도로확장, 비닐하우스, 기업형 축사 등의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고 개체 밀집도가 상승하면서 질병확산 및 집단 폐사 가능성 증가 위험이 있어 서식지 보전과 분산이 시급하다.

한국WWF는 철원 DMZ지역 내 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장소에 무논을 조성하여 두루미류 서식지를 확대하고 AI 등의 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식지를 분산하고자 하였다.

무논이란 물과 논이 합쳐진 단어로 수확이 끝난 논에 물을 대어 겨울철 내내 깊이 3~30cm의 물이 고인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일종의 인공습지로 철새서식지와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자연기반해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무논에는 삵 등의 천적이 들어올 수 없어 두루미, 재두루미를 포함한 겨울철새들이 안전하게 휴식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쉼터로 활용할 수 있다. 무논은 또한 작은 습지처럼 작용하여 홍수예방, 수질정화, 토양 염류 완화 등 다양한 생태적 역할도 수행하며 겨울철 철새 활동으로 토양에 질소 등의 영양분을 제공하고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하여 토양의 질적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WWF는 철원 두루미 운영협의체와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민들에게 토지임대료 및 노동제공에 대한 활동비를 제공하고 이듬해 모내기철 전에 무논으로 망가진 논두렁 복구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과 두루미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보전사업을 진행하였다. 2025년 무논 조성 사업에는 총 11개 농가가 참여하여 총 280,000m^{2}의 무논을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두루미류의 서식지를 확대하고 분산시킬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두루미와 지역주민의 조화로운 공존을 실현하여 자연보전과 지역상생을 동시에 달성하는 지속가능한 보전 모델을 구축하였다. 한국WWF는 철원 DMZ 지역에서 전선충돌사고 예방 사업 및 벼존치 미수확 사업 등으로 확대하며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두루미 서식지 보전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활동 요약

활동	내용	성과
서식지 보호·복원	두루미 쉼터(무논) 조성 사업	• 11개 농가 참여, 280,000m^2 쉼터(무논) 조성
지역사회/대중 인식제고·참여	주민간담회 개최	• 철원군청, 농민, 철원두루미운영협의체, 국제두루미재단, WWF 총 16명 참가하여 두루미 보전과 지역 상생방안 논의

협력기관 철원 두루미 운영협의체

6 수달(*Lutra lutra*)

── 돌아올 자리를 만들다

1. 지정현황

- 세계적색목록 준위협(NT)
- 한국적색목록 취약(VU)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 천연기념물 제330호

활동목표

- 안정적인 수달 서식지 조성
- 전국 수달 서식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보전 활동 기반 마련
- 수달 보전 필요성과 인간과의 공존에 대한 인식제고

추진 방법

- 서식지 보호·복원
- 모니터링·연구
- 지역사회/대중 인식제고·참여

2. 특성

수변부에 갈대나 식생이 풍부하고 먹잇감이 많은 하천이나 호숫가에 서식한다. 보금자리로는 주로 물가에 있는 바위 구멍 또는 나무뿌리 밑의 틈새공간을 이용한다. 물고기를 주식으로 하지만 양서류, 갑각류, 조류 등 다양한 먹이를 먹는다. 주로 야행성이고 한줄기의 하천 내에서 7-15km에 달하는 세력권을 가지고 있으며 영역표시를 위해 눈에 잘 띄는 바위 위에 배설물을 남긴다.

3. 분포

(국내)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

(국외) 유럽과 아시아 하천변에 넓게 분포

4. 위협요인

서식지 파괴, 수질오염 및 모피를 위한 남획

5. 보전 필요성

기후에너지환경부 우선복원대상종으로 서식 분포 범위는 넓지만 수계에만 한정되어 서식하는 종으로 지속적인 복원 기술 개발과 서식지 보호·관리가 필요하다.

전국 하천에 넓게 분포하는 수달의 서식지 보전에 기여하고자 한국WWF는 '사회적협동조합 한강'과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전국수달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세가지 활동을 진행하였다.

첫번째는 하천정화활동으로, 물의 날을 맞아 전국 총 16개 단체, 587명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총 7,780ℓ의 하천쓰레기를 수거하였다. 이는 수달이 살아가는 하천 환경을 개선해 하천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는 직접적 활동이었다. 또한 수달의 날을 맞아 수달그리기한마당을 진행하여 참가자들에게 수달에 대한 관심과 공존 필요성을 전달하였다. 마지막으로 2025년 전국수달동시조사를 통해 수달의 현 서식실태를 조사하여 훼손되어가고 있는 하천 생태계 보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현장에 남겨진 수달의 흔적을 조사하여 네이처링 앱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2개 단체와 시민과학자 55명이 참여하여 등록한 전국 수달확인장소는 총 247건에 달했다.

무등산국립공원에서는 국립공원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무동제 일대에 수달을 위한 섬 형태의 인공 소생태계를 조성하였다. 무동제는 무등산국립공원 내 담양군과 화순군의 경계에서 섬진강으로 흐르는 수계의 최상류로 수달 외에도 물총새, 담비, 삵 등이 서식하는 핵심 야생동물 서식지이다.

조성된 수달섬은 수중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육지에서 휴식과 건조 행동을 하는 수달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능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수달의 접근성을 고려해 수변과 육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였으며 배변과 휴식을 위한 바위 및 굴 형태의 구조물을 배치함으로써 서식지의 안정성과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이러한 설계는 종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서식지 기능 복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장기적인 보전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무동제 일대에 무인센서카메라 4대를 설치하여 주요 야생생물의 출현과 활동 양상을 지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종의 생태적 특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보전 전략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본 사례는 서식지 조성과 모니터링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때 멸종위기종 보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에도 종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식지 복원과 과학적 모니터링 체계를 결합한 통합적 보전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활동 요약

활동	내용	성과
서식지 보호·복원	물의 날(3/22) 하천정화활동	• 전국 총 16개 단체, 587명의 시민 참여 • 여의샛강, 중랑천, 수원, 세종, 고양, 안성천 등지에서 총 7,780ℓ (약 1톤) 하천쓰레기 수거
	무등산국립공원 무동제 일대 인공 소생태계 조성	• 28.26 m^2 수달섬 조성
모니터링·연구	전국수달시민동시조사	• 12개 단체와 시민과학자 55명 참여, 전국 수달확인장소 총 247건 기록 • 전국센서스 보고집 발간
	무등산국립공원 무동제 일대 인공 소생태계 모니터링	• 무인센서 카메라 4대 설치 및 관찰, 기록
지역사회/ 대중 인식제고·참여	수달그리기대회	• 총 17개 단체, 830명 참여

협력기관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국립공원 KOREA NATIONAL PARK

7 저어새(*Platalea minor*)

── 쌍일수록 단단해지는 보전의 근거

1. 지정현황

세계적색목록 취약(VU)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 한국적색목록 취약(VU) | 천연기념물 제205-1호

2. 특성

주걱 모양의 독특한 부리를 가진 저어새는 얕은 물속에 부리를 담그고 부리를 저어 먹이를 찾고 작은 물고기, 개구리, 올챙이, 갑각류 등을 잡아먹는다. 저어새 부리 윗부분의 주름은 사람의 지문처럼 개체마다 모양이 다르며 성장에 따라 주름이 완성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번식기인 3월부터 11월까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서식하며 물을 가둔 논, 강 하구, 얕은 해안이나 갯벌, 갈대밭 등지를 선호한다.

3. 분포

(국내) 임진강 하구, 낙동강 하구, 제주도 성산포 일대 해안과 갯벌, 하구

(국외) 홍콩, 대만,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동아시아에만 분포

4. 위협요인

갯벌과 해안 개발

5. 보전 필요성

전세계 저어새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에서 번식하고 있으나 각종 개발 사업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서식지 면적이 감소하고 서식 환경이 악화되어 저어새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적극적인 보전 활동이 필요하다.

활동목표

- 전국 모니터링을 통한 저어새 서식지 분포와 개체군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
- 서식지 환경 정화 및 연계 현장 활동을 통한 보전 조치 실효성 제고 및 위협 요인 완화
- 저어새 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지속적 보전 기반 강화

추진 방법

- 모니터링 · 연구
- 지역사회/대중 인식제고 · 참여

© 이기섭

저어새는 동아시아 일대에 국지적으로 서식하는 종으로 전 세계 번식 개체군의 90% 이상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번식한다. 특히 한반도 서해안 일대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긴 시간을 보내는데, 이 지역은 대규모 갯벌 매립과 최근 해안가 일대의 개발이 계속되고 있어 저어새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저어새 서식지 보호활동 및 시민참여 모니터링 사업은 이러한 서식지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장기적인 보전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사업은 전국 단위 모니터링 조사를 중심으로 서식지 환경정화 및 보전 인식 증진 활동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전국 모니터링은 2025년 4월 비영리기관 '저어새와 친구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8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전국 30개 단체에 소속된 82명의 모니터링 활동가가 참여했으며 조사 및 운영 인력을 포함한 총 참여 인원은 약 12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조사는 인천을 포함한 전국 33개 지역의 주요 저어새 서식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서식지 분포와 개체군 규모에 대한 광범위한 현황 자료가 수집되었다. 조사 결과 2025년 전국 조사 지역에서 총 14,407건의 저어새가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시민참여 기반 모니터링은 광범위한 조사 범위를 안정적으로 포괄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저어새 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적인 보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일반 시민과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저어새 생태교육과 서식지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하였다.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저어새의 서식지는 갯벌과 섬 등 자연생태계에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산업공단 인근의 인공 유수지, 또는 농경지를 서식, 번식 및 먹이활동지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인간과의 공존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과 서식지 환경정화 활동은 안정적인 저어새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

활동 요약

활동	내용	성과
모니터링 · 연구	시민참여 기반 모니터링 사업	• 전국 30개 단체, 82명 모니터링 활동가 참여 • 전국 33개 지역 대상 모니터링 4회 실시 • 저어새 총 14,407건 관찰
지역사회/ 대중 인식제고 · 참여	저어새 보전 인식증진 교육 저어새 서식지 정화활동	• 4개 기업 임직원 대상 저어새 생태교육과 정화활동

협력기관 저어새와 친구들 Black-faced spoonbill and friends

8 바다거북(Sea Turtle)

── 오는 자리를 준비하는 일

1. 지정현황

붉은바다거북 (*Caretta caretta*) — 해양보호생물, 세계적색목록 취약(VU)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바다거북종
(국내 해양보호생물 지정종: 올리브바다거북, 장수거북, 매부리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푸른바다거북)

푸른바다거북 (*Chelonia mydas*) — 해양보호생물, 세계적색목록 최소관심(LC)

2. 특성

열대해역과 아열대해역에서 주로 살며 난류를 따라 온대해역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잡식성으로 물고기, 해양조류, 해초, 맹그로브의 일부분, 해양무척추동물 등을 먹이로 한다. 흥미로운 점은 부화 중 특정 시기의 온도에 따라 새끼의 성별이 결정된다. 29 °C 이하에서는 대부분 수컷으로, 29 °C 부근에서는 50:50의 성비로, 29 °C 이상에서는 대부분 암컷으로 결정된다.

3. 분포

(국내)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일부 지역
(국외) 열대해역과 아열대해역에서 주로 살며 난류를 따라 고위도 온대해역으로 이동하기도 함

© Antonio Busiello / WWF-US

4. 위협요인

혼획, 기후변화로 인한 성비 불균형, 해양 플라스틱오염 등

5. 보전 필요성

인간 활동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전체 바다거북 7종이 모두 멸종위기에 처해있으며 특히 최근 한국 연안에서 좌초되거나 혼획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보전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주요 서식종은 아니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점차 서식지가 북상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서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활동목표

- 한반도 연안 바다거북 출현에 대응해 국내 해역 기반 보전 인식 및 관리 필요성 확립
- 바다거북 서식·이동 환경에 대한 위협 요인 저감 및 기초 데이터 축적
- 국제 연구·교육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한 글로벌 보전 활동 확장

추진 방법

- 서식지 보호 · 복원
- 모니터링 · 연구
- 지역사회/대중 인식제고 · 참여

우리나라에서 바다거북은 과거에는 이동 경로상에서 일시적으로 출현하는 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와 해수온도 상승에 따라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의 출현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먹이활동과 잠재적 산란지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다거북 보전은 더 이상 특정 국가에 국한된 과제가 아니라 국내 해양 환경 관리와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 디프다제주

© 디프다제주

제주 연안에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바다거북 출현지 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디프다제주와 협력하여 해안 및 수중 정화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 총 216명의 시민이 참여해 약 5.1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이를 통해 바다거북의 먹이 환경과 이동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시민 참여를 통해 장기적 보전 기반을 확장할 수 있었다.

© 디프다제주

한편 바다거북 주요 위협 요인 중 하나인 불법 어획과 유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본 활동을 국제 모니터링 연구 활동과도 연계하였다.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셸뱅크(ShellBank)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바다거북 사체 및 등갑 샘플의 DNA 분석을 통해 개체 이동 경로와 불법 거래 실태를 추적하는 연구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도 한국WWF의 셸뱅크 프로젝트 지원은 홍콩에서 수집한 245개의 샘플 분석을 통해 바다거북 개체 간 연결성과 이동 경로를 규명하는 데 기여하였고, 중국 17개도시 40개 항구세관에 바다거북 불법거래 방지 포스터를 배포하였다. 또한, 제주도 해안 정화 활동 중 발견된 바다거북 사체 샘플을 제주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분석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공유하였다.

아울러 해외 주요 서식지에서는 보전 현장과 교육을 결합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였다. 인도네시아 발리에 위치한 Turtle Conservation Education Center의 보전 프로그램에는 국내 기업이 참여하여 바다거북 보호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지역사회 기반 보전의 중요성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기업 참여를 통해 바다거북 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장하고 글로벌 보전 노력과의 연계를 강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활동 요약

활동	내용	성과
서식지 보호 · 복원	해안/수중 정화 활동	• 총 216명 시민 참여, 약 5.1톤 쓰레기 수거
모니터링 · 연구	국제 바다거북 모니터링 연구활동 '셸뱅크(ShellBank)' 프로젝트 지원	• 전세계에서 발견되는 바다거북 사체 및 등갑 샘플의 DNA 분석을 통해 개체 이동경로와 불법거래 실태를 추적하는 연구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 홍콩 수집 245개 DNA 샘플 분석 - 제주도 해안 정화시 발견된 바다거북 사체 샘플 공유
지역사회/대중 인식 제고 · 참여	발리 지역사회 기반 보전활동을 위한 인식 제고 교육	• Turtle Conservation Education Center 교육/체험 활동 진행, 현지 학생 29명 참가 • 중국 17개도시 40개 항구세관에 바다거북 불법거래 방지 포스터 배포

협력기관 DIPHDA JEJU SHELLBANK

9 점박이물범(*Phoca largha*)

── 가로림만, 또 하나의 서식지

© 번데기의 최후(블로그)

1. 지정현황

세계적색목록 관심대상(LC)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 한국적색목록 위기(EN) | 천연기념물 제331호 | 해양보호생물

2. 특성

은회색 몸통에 개체마다 고유한 검은색 또는 짙은 갈색의 불규칙한 점무늬가 온몸에 퍼져 있으며 명태, 청어, 대형 플랑크톤 등을 섭식한다. 매년 1-3월경 중국 리아오동만(발해만)의 유빙 위에서 새끼를 낳고 봄이 되면 우리나라 백령도 등지로 내려와 여름을 보내고 가을철에는 번식을 위해 다시 북쪽으로 이동한다.

3. 분포

(국내) 백령도, 서산 가로림만 등지
(국외) 북태평양, 러시아 캄차카, 일본 홋카이도,
미국 알래스카 알류산 해역 등지

4. 위협요인

환경오염, 관광지 개발 등 서식지 파괴와 어류 남획으로 인한 먹이부족 등

5. 보전 필요성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해양보호생물 지정종이지만 생태학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모니터링과 기초 데이터 확보가 시급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보전 활동이 필요하다.

활동목표

- 시민참여 정기 모니터링을 통한 점박이물범 출현 현황 및 생태적 특성 파악
- 개체식별 가능한 과학적 데이터 확보 및 서식지 이용 변화 분석 기반 마련
- 가로림만 보호 가치 및 지속적 서식지 보전 기반 강화

추진 방법

- 모니터링 · 연구
- 지역사회/대중 인식제고 · 참여

충남 가로림만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의 핵심 서식지를 대상으로 시민참여 기반의 모니터링과 데이터 수집을 중심으로 한 서식지 보전 활동을 추진하였다. 점박이물범은 겨울철 중국에서 번식하고 봄이 되면 먹이와 휴식처를 찾아 가로림만 해역으로 이동하는데 이는 얕은 수심에 모래톱이 잘 형성되어 있고 먹이가 풍부해 점박이 물범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로림만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점박이물범을 육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서식지의 생태적 가치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높은 해역이다. 그 중요성에 따라 2016년 가로림만은 국내 최초로 최대규모의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2015년부터 시작된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모니터링 사업에 2025년 부터 한국WWF가 참여하며, 조사빈도가 월 2회로 증가하여 보다 정밀한 출현 현황 파악이 가능해졌다. 조사는 선박 조사와 드론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사진 기록과 영상 자료를 함께 수집해 정확도를 높였다. 이러한 조사 체계 고도화를 통해 점박이물범 개체식별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누적되었고 개체 식별 가능성 또한 점차 향상되고 있다.

©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

2025년 조사에서 점박이물범은 4월과 10월에는 평균 2마리가 관찰된 반면, 7~8월에는 10~12마리가 확인되어 연중 가장 활발한 출현 양상을 보였다. 특히 여느 해 10월 말이면 북상하여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개체들이 11월 초 모니터링에서 이례적으로 3개체가 관찰되었으며 번식지로 이동하지 않은 어린 개체가 일시적으로 잔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추가 모니터링이 11월 중순에 실시되었으나 이후 개체는 확인되지 않아 해당 개체들이 번식지로 북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점박이물범의 출현 패턴과 이동 특성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이용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는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 인식을 높이는데 사용되어 2025년 가로림만이 국내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되는 기반이 되었으며,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등 지역 차원의 보전 논의에도 기여하고 있다.

향후에는 본격적인 개체식별 연구를 수행하여 개체별 서식지 충성도와 연안 이용 특성을 분석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연안에서의 점박이물범 이동 패턴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활동 요약

활동	내용	성과
모니터링 · 연구	시민참여 모니터링	• 모니터링 총 10회 – 2주 간격 모니터링 (7~11월) • 매 회 선박조사 및 드론조사 5회 병행
지역사회/대중 인식제고 · 참여		• 총 90명 시민 참가

협력기관 서산태안 환경교육센터 Seosan-Taean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

파트너사 임직원 활동

‘애니스테이’ 임직원 참여 활동은 파트너사 임직원이 기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보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WWF는 파트너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애니스테이 보전 현장에서 생물다양성 교육 및 체험, 멸종위기종 탐사, 서식지 보전활동 등 다채로운 임직원 참여활동을 진행한다. 임직원들이 기업이 후원하는 보전 대상 생물종과 사업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전활동에 기여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자긍심과 환경적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직접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교육과 체험을 통한 인식 제고가 일상 속 실천 및 지속가능성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2025년에는 총7개 기업에서 11회에 걸쳐 광릉숲, 중랑천, 송도, 인천 등지에서 생물다양성에 대해 배우고 직접 경험하며 보전에 기여하였으며, 참여 임직원과 가족에게 뜻깊은 경험을 제공하였다.

한국WWF는 앞으로도 애니스테이 현장의 생생한 감동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임직원 참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및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임직원 참여활동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보전을 실천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맺음말

한국WWF는 애니스테이 활동을 통해
멸종위기종을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를
지키는 일이 곧 인간과 지구의 안전,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일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한국 WWF는 2025년 한 해 동안 애니스테이를 통해 산림, 하천/습지, 해양이라는 서로 다른 생태계에서 서식지 보호·복원, 과학적 모니터링과 연구, 인간–야생동물 갈등 완화, 지역사회 참여 및 인식 제고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의미 있는 보전 성과를 축적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장 중심의 활동을 기반으로 시민, 전문가, 지역사회, 기업 파트너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자연보전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존의 방식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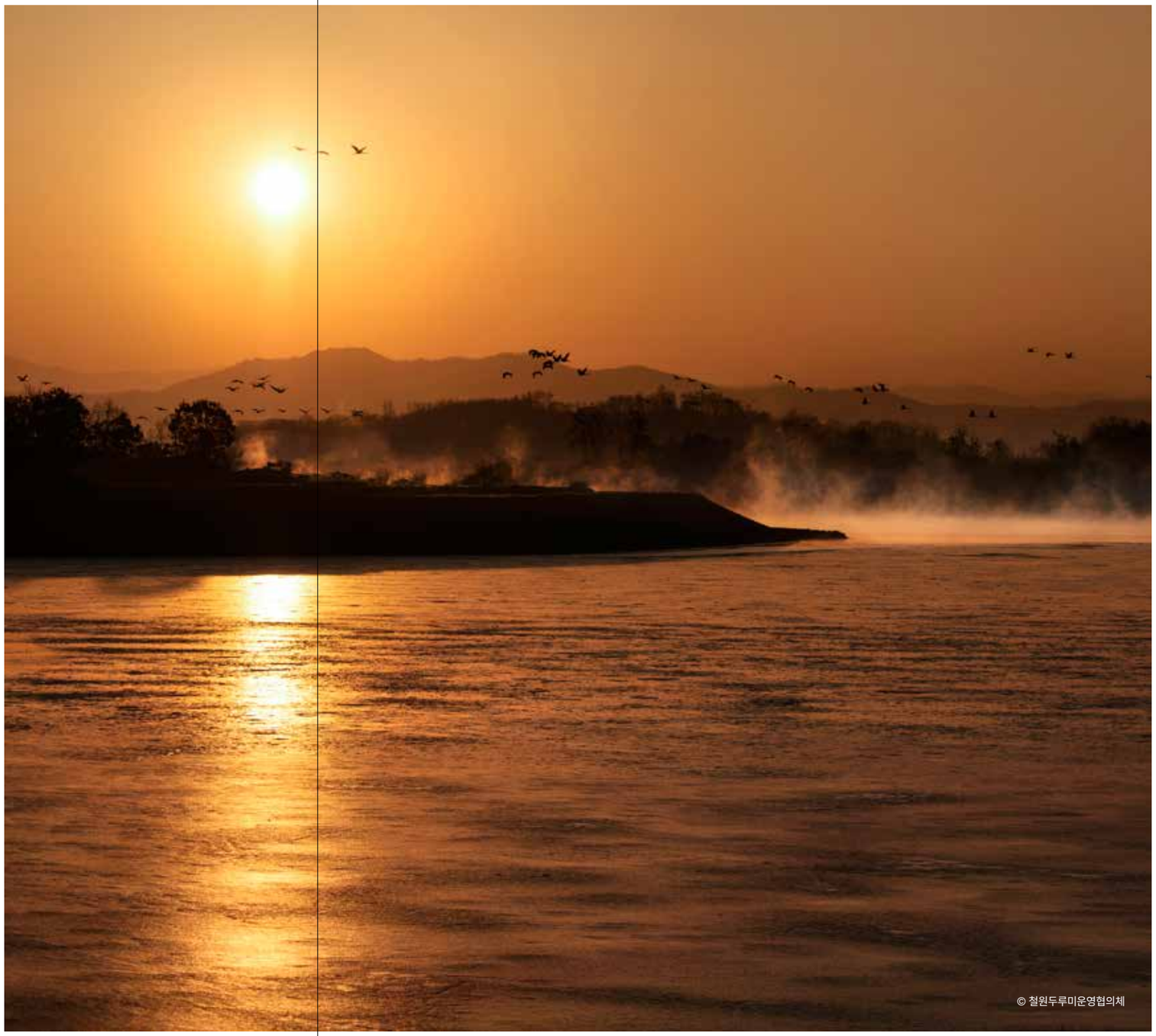
앞으로 한국WWF는 2025년에 확보한 데이터와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각 생태계별 핵심 서식지에서 보전 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개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높여갈 것이다. 특히 서식지 보전의 실질적인 변화와 확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참여와 진정성 있는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한국WWF는 기업 파트너십 및 임직원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 작은 행동이 보전 재원과 현장 활동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확대하여 더 많은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애니스테이가 만들어 갈 지속적인 동참과 연대가 더 많은 생명과 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문의	
보전활동	BDteam@wwfkorea.or.kr
기업협력	partnership@wwfkorea.or.kr
개인후원	members@wwfkorea.or.kr

© Jonathan Caramanus Green Renaissance / WWF-UK

참고문헌

1. CPF. 2008. Strategic framework for forests and climate change. A proposal by the Collaborative Partnership on Forests for a coordinated forest–sector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e Collaborative Partnership on Forests.
2. 국립산림과학원. 2021. 2020 한국의 산림자원(개정판). 국립산림과학원.
3. 국토교통부. 2020.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II. 국토교통부.
4. Kamp, U., Binder, W., Holzl, K. 2007. River habitat monitoring and assessment in Germany.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Assessment 127: 209–226.
5. 전승훈, 김채백, 김우람, 박상길, 채수권. 2015. 우리나라 하천 환경 평가체계의 분석: 생물분야를 중심으로. 응용생태공학회 2(2): 108–117.
6. 한국국토정보공사. 2024. 도시계획현황(하천). 한국국토정보공사. 2026.01.19.
7. 이창수, 신해선, 이형철, 김이정, 이상훈. 2024. 국내 내륙습지의 공간정보 작성에 관한 연구. GEO DATA 6(4): 226–234.
8. 해양수산부. 2023. 2023 갯벌면적조사. 해양수산부.
9. 환경부. 2018.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2018–2027). 환경부.
10.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026. 2025년 국가 해양수산생물 종목록집.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철원두루미운영협의체

WWF(세계자연기금)는 지구의 자연환경 파괴를 막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일하는
세계 최대 자연보전기관입니다.

together possible™ wwfkorea.or.kr

© 2026
© 1986 판다 도형 WWF - 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전 World Wildlife Fund 세계야생동물기금)
® 'WWF'는 WWF의 등록상표입니다.